

1. 말씀

- 1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뵤뵤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2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그녀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나도 그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3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 4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 5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 6 여러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7 나의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 8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9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볼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11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깃수의 집안 사람 중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12 주 안에서 수고한 두 자매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랑하는 자매 버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 13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4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5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16 여러분은 성도의 사랑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바울을 편지를 마치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3-4, 14-15절)

→ _____

- 2절에서 바울은 뱀뱌를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정중히 맞아들이고 아낌없이 도와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이 말한 "성도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정중히 맞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변에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_____

- 나에게서 함께 신앙을 지키고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나요? 신앙 안에서 나에게 영적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_____

- 혹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함께하고 있나요?

→ _____

-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 받는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내 주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6:1-16 (문안인사)

동반자를 잘 만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굴곡이 심해지기도 하고 순탄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바울과 로마의 동역자들 사이의 사랑은 상당히 끈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동역자라 부르고 사명감을 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인사를 받거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되새기면서 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통해 가르친 교훈을 성실하게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누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은 각 사람을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통해 귀하게 사용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동역자와 함께하는 목회를 통해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교회도 있지만 분쟁이 일어나는 일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과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목사들의 독선적 목회운영에 기인함을 보며, 함께 동역자란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높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